



환경을 지키는 숲 보안림 (IV)



李天龍 / 임업연구원 임업연구원



▲남해군 물건리 어부림 당목 1994. 10. 16

다. 그러나 전체보안림에 대한 비율은 거의 2배로 증가하였으므로 다른 보안림에 비하여 감소율이 상당히 낮다. 따라서 수령이 오래된 나무가 많으며 심지어 마을의 수호신인 당목의 역할까지 하는 문화적 요소도 갖추고 있다.

표1. 연도별 어부림 면적의 변화
(단위 : ha)

연도	'80	'84	'88	'93
면적	7728	6319	5994	5913

(2) 어부림이 있는 곳

(가) 경남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새파란 바다가 구름이나 바람에 따라 다른 색을 보이는 청정지역에 위치한 물건리 어부림은 유난히 새소리가 많이 들린다. 먹이가 되는 열매가 많기 때문일까? 숲 바로 밑에는 방파제 구실을 하는 석축이 있고 그 아래에는 몽돌이 파도가 칠 때마다 소리를 낸

라. 어부림

(1) 현황

어부림(漁付林)은 물고기가 서식할 수 있도록 그늘을 제공하기 위해 해안가에 조성한 숲이지만 방풍(防風) 및 방조(防潮)의 기능

을 함께 갖고 있기 때문에 해안지대의 환경보전에 상당히 중요한 숲이다. 어부 보안림의 면적은 표1과 같이 '80년도에 7,700여헥타아르(전체 보안림의 1.24%)였으나 지금은 5,900여 헥타아르(보안림의 2.4%)로서 약간 감소하였

다. 물속에 숨겨진 백사장은 경사가 완만하여 여름에는 하루에 천 명도 넘는 관광객이 온다고 한다. 인근 지역에 있는 상주해수욕장은 바람에 모래가 날린다는데 이곳은 자갈이 깔려 있어 그럴 염려가 없다.

약 300년전에 바닷가를 따라 길이 900미터, 폭 30미터로 조성된 이 숲은 낙엽활엽수림으로 나무 높이는 대체로 10-15미터이며, 큰 나무가 약 2,000그루 그리고 작은 나무는 약 8만 그루라 한다. 숲의 상층은 팽나무, 푸조나무, 상수리나무, 참느릅나무 등으로 구성되고 하층은 보리수나무, 동백, 광대싸리, 윤노리나무 등이 있다.

숲에 의해 바닷가에 그늘이 드리우면 도미나 떨치가 해안으로 붙어 번식을 잘하고 따라서 고기가 잘 잡혀 남해에서 가장 부유한 마을이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처녀들이 용꿈을 꾸어야 이 마을로 시집을 올 수 있었다고 한다. 19세기 말 이 숲을 벤 후 폭풍을 만나 마을이 큰 피해를 입게 되자 숲을 해치면 마을이 망한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 오며 이후로는 숲을 잘 보호하고 있다. 심지어 일제시대에는 일본인들이 총개머리판으로 쓰려고 벌채하려고 했을 때 주민들이 나라 대신 쓰라고 하여 숲이 망가지는 것을 막았다는 일화도 있다.

옛날에는 면유림(面有林)이었으나 지금은 동유림(洞有林)으로



▲남해군 물건 어부림 당목 1994. 10. 16



▲남해군 물건 어부림 당목 1994. 10. 16

되어 있어 주민들은 도문화재로 지정되어 숲이 보전되기를 갈망한다. 그렇게 되면 국가차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주변 100미터 이내에는 건물을 세울 수 없기 때문이다. 면유림일 당시 공매를 시도한 적도 있었으나 주민들이 반대하여 성사되지 못하였는데 주민들의 숲에 대한 애정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다.

봄에 이팝나무꽃이 필 때면 너무도 아름다워 많은 사람들이 구경오지만 밤에 모기를 쫓으려고

나무가지를 꺾어 불을 피우거나 토양을 교란하여 숲이 훼손되고 있다. 마을 주민들은 훼손을 막기 위해 '94년에는 철책을 쳐서 노쇠한 숲을 보호하고 후대목의 발생을 도모하고 있지만 일제시대에는 집들이 숲 한가운데 개인 소유로 남아 있고 어구(魚具)를 정비하는 작업도 관행대로 숲 안에서 하고 있으며 전봇대를 설치하여 자연미를 해치고 있었다. 이들을 숲 밖으로 이주시키는 방법을 생각해 볼 일이다.



▲남해군 돌건 어부림 당목 1994. 10. 16

기념물 150호라고 새겨진 비석 오른쪽에는 두 그루의 큰 나무가 서 있다. 바로 옆의 사랑포구나무는 할머니 나무이고 이팝나무는 할아버지 나무라고 부르는 소위 당산목이다. 당산목은 신의 세계인 하늘과 인간의 세계인 지상을 넘나들 수 있는 매체의 역할을 하는 세계수이다. 신목을 가장 잘 보존하고 있는 곳은 원주 신림의 성황림이다. 치악산 남대봉 아래에 있으며 소나무와 복자기를 비롯한 낙엽활엽수로 이루어진 숲에 장대한 전나무도 서 있다. 여러가지 수목 중 신체가 되는 것은 활엽수로 느티나무나 팽나무가 많다고 한다. 그러나 남해의 지리적 특성상 위의 두 수종이 신목으로 되어 있다.

마을 사람들은 조상이 물려준 유산이라 잘 지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벼락에 맞고 폭풍에 가지가 부러지고 병충해의 공격을 받아 점차 쇠락하는 이 숲의 보호는 그들의 몫만은 아니다. 조금이

라도 관심을 보이고 이야기를 건네면 당산목을 치료해 달라고 부탁하는 모습을 볼 때 사라져가는 정신적, 문화적 자연이 안타깝다. 나무에 생기를 불어 넣으려고 바람이 항상 강하게 닿는 나무에 비료를 주어 생장을 촉진시킨 결과 오히려 연약해져 부러지는 가지를 보며 값진 시행착오의 결과를 얻기도 하였다.

(나) 전남 완도군 노화읍 예송리

전남 보길도 예송리 해안에 약 740m에 걸쳐 너비 약 30m의 띠 숲으로 펼쳐 있다. 약 300년 전 마을 사람들이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풍(防風)목적으로 심었다고 한다. 숲은 주로 상록활엽수림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해송도 상당수 서 있다.

해송의 수령은 50~100년생으로 그 가운데 큰 나무 하나는 당산목으로서 음력 선달 그믐날에는 마을과 바닷일의 안녕 그리고

풍어를 기원하는 제사를 지낸다. 주민들은 또 음력 4월 12일에는 해신제를 올려 바닷일의 무사를 기원한다. 그리고 음력 정월 초하룻날 숲 앞 바닷가에서 제사를 받지 못하는 영혼을 위해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제상을 차려 명복을 빈다고 한다.

현재 녹나무, 잣나무, 동백나무, 후박나무, 붉가시나무, 참가시나무, 종가시나무, 생달나무, 까마귀쪽나무, 광나무, 돈나무, 우묵사스레피나무, 송악, 보리밥나무, 딱총나무, 작살나무, 인동덩굴, 꾸지뽕나무, 젓꼭지나무, 붉나무, 청미래, 두릅나무, 예덕나무, 팽나무, 누리장나무, 상동나무, 새비나무, 졸참나무, 산초나무, 담쟁이, 멀구슬나무, 쥐똥나무 등이 영겨 자라고 있다. 그 가운데 보리밥나무의 덩굴은 아주 굵고 다른 나무를 타고 높게 자라고 있어 경관적 가치와 어업상의 이용 가치가 높다. 마을 사람들은 보리밥나무를 뿔쪽으로, 송악을 구슬나무로, 멀구슬나무를 오징개나무로 호칭하고 있다. 이 지역은 기후가 온화하고 강수량도 풍부하여 나무가 잘 자라고 있지만 최근 관광객이 많아 숲 보호에 문제점이 많다.

마. 낙석방지림

낙석은 경사면에서 굴러 내려오거나 튀면서 밑으로 떨어지므로 도로변에는 낙석방지책과 같

은 효과를 갖기 위해 띠숲을 조성한다. 사면의 길이가 길면 낙하속도도 점차 빨라지지만 보통 초당 10미터를 굴러간다. 산림의 낙석방지기능은 나무가 직접 돌을 막아 주거나, 침식에 의하여 돌이 굴러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즉 산림은 돌 밑의 흙이 패이지 않게 수간과 뿌리가 침식을 억제하고, 뿌리는 토양층을 잡고 있어서 지표 균열을 방지하며, 지면의 급격한 온도 변화를 방지하여 토층의 동결과 융해를 완화하고, 강풍을 막아주는 기능을 들 수 있다.

낙석방지림은 수익성을 목적으로 하는 직경이 굵고 수간이 짧은 용재림이 아니고, 입지조건에 대한 저항성, 생장률, 뿌리의 깊이 정도를 고려하여 강건한 산림을 육성해야 한다. 즉 낙석방지림의 조건은 1) 입지에 대한 요구도가 적고 척박지에 강하며 2) 여러가지 재해에 대한 저항력이 높고 3) 뿌리발달이 왕성하여 토양을 고정하고 4) 수간생장이 좋아서 낙석에 부딪혀도 부러지지 않는 등 여러가지를 만족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양수의 심근성 수종이 적합하다. 음수는 입지를 선택하며, 생장이 비교적 느리고, 재해에 대한 저항성이 약하여 적합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활엽수는 침엽수보다 저항력이 강하여 부러져도 맹아에 의해 쉽게 복원된다.

조성수종은 자생수종이 좋으며 도입수종은 효과를 검증한 뒤 사



▲유석방지효과, 진해, 1995.

용한다. 직근이며 심근성의 토양 긴박력이 큰 수종을 선정하며 다음에 낙석충격에 잘 견디고, 상처가 잘 치료되고, 맹아갱신이 잘 되는 수종이 좋다. 그 외 포도와 풍화토의 유실과 퇴적에 의한 매몰에 견디어 부정근이 잘 생기는 수종, 내음성이 높고 입목밀도를 높게 유지하는 수종, 해안지방에서는 내염성이 높은 수종으로서 곰솔, 사방오리, 아까시나무, 편백이 좋다.

낙석위험지는 급경사지의 암석지, 토심이 얇은 곳, 표토이동이 일어나는 곳 등 식생정착이 불리한 지역이 많지만 산자락은 비교적 경사가 완만하므로 낙석방지림은 이러한 지역에 조성하되 필요에 따라 흙막이, 골막이, 수로공, 편책 등 기초공을 실시하여 점차 산허리 쪽으로 입분형성을 유도한다.

임상은 침활혼효림이 좋으며

면적이 넓으면 여러수종을 혼합하되 매열마다 다른 수종을 배치하고 면적이 좁으면 열상(烈狀)으로 혼효시킨다. 열 간격은 2미터, 줄 간격은 1미터(헥타아르당 5,000본)가 좋다. 열단위 식재방법은 미래의 복층림으로 유도할 때도 좋다.

산림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낙석방지 효과를 기대하려면 식재 후 무육관리를 잘해야 한다. 하예-제벌-간벌-복층림의 순서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서 제벌은 조림 후 10년전후에 실시하고 간벌은 낙석의 크기와 입분밀도를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한다. 울폐림하에서는 지표식생이 감소하므로 빛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열단위의 시업을 한다. 낙석방지림에서는 벌채, 뿌리채취, 개간 기타 토질변경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